

교섭속보

- 주요구 1. 정년연장, 신규채용
2. 고정OT 월 20시간
3. 특별상여금 영업이익 15%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이 현 우 / FAX(031)680-6865 / 발행일 2026년 9월 18일(금) / 제 11호

12차

◆ 임금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7일(목) 10:00 ~ 10:15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참석

☐ 노측 : 김병철 교섭대표 외 10명 ☐ 불참 : 없음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김양현 교섭위원 (사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단체협약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7일(목) 12:00 ~ 12:10

◇ 참석

☐ 노측 : 김병철 교섭대표 외 10명 ☐ 불참 : 없음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김양현 교섭위원 (사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임금 교섭 주요 내용 -

☐ 노 : 전차에 회사측에서 제시한 안에 ‘기능직 기본급 인상’이라는 표현이 있다. 무슨 의미 인가. 사무직은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 사 : 기능직 기본급 인상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 없다. 오해 없길 바란다.

☐ 노 : 1990년대부터 회사 제시안 중 ‘기능직 기본급’이라는 단어는 처음이다. 사무직 임금인상만 별도로 하겠다는 오해를 충분히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만도 구성원 중 사무직은 연차축진제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줘야 하지 않나. 단협 밖에 있는 구성원이지만 금전적으로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사 경영상 비용을 위해 줄였던 것이라면,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이 지적하기 전에 회사가 먼저 개선을 하길바란다.

☐ 사 : 연차축진제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조직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추후 내부적인 소통을 하겠다.

☐ 노 : 전차 제시한 안 이후 별도 준비된 안 제시 바란다.

☐ 사 : 많은 고민 끝에 제시한 안이다. 조합측에서 전향적인 검토 바란다.

□ 노 : 노동조합 요구안 중 기본급에 대한 안만 있다. 특별상여금을 교섭에서 다루기 힘들다 하니, 상반기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찾아보면 방안이 많아 교섭에서 다루지 못할 이유 없다.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교섭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추후에는 특별상여금도 수용 가능한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안이 없다면 이만 마치자.

- 단체협약 교섭 주요 내용 -

□ 노 : 단체협약 교섭을 실무교섭 위주로 진행해왔다. 의견일치된 92개 조항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음한다.

□ 사 : 이견없다.

□ 노 : 다음주는 벌써 추석이다. 하지만 조합이 요구한 핵심 요구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차기에는 회사가 심사숙고 하여 조합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기능직 기본급 인상’이라는 문구, 진정 오해이길 바란다

회사가 지난 교섭에서 제시한 안에는 ‘기능직 기본급 인상’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노동조합은 이 표현이 사무직은 인상 대상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오해를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특별한 의미 없다고 해명했지만, 30년 넘게 없던 표현이 갑자기 등장한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는 어렵다.

사무직 연차수당마저 아끼는 회사, 최고 실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노동조합은 단협 밖에 있는 사무직 구성원의 처우까지 쫓았다. 사무직은 연차축진제를 시행 중인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이 아닌 구성원이라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금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원칙 아래 이 문제를 회사에 직접 제기했다. 회사가 과거 비용 절감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었다면, 사상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노동조합이 지적하기 전에 회사 스스로 바로잡았어야 할 일이다.

다음 교섭에는 진짜 안을 가져오라

무려 12차에 이르는 교섭이 반복되는 동안 회사가 보여준 것은 성의가 아니라 시간끌기와 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노동조합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 이제는 회사가 응답할 차례다. 다음 교섭에서는 지난 안을 되풀이하는 대신, **조합이 동의할 수 있는 진짜 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차기에도 같은 답이 반복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